

## 2020 년 10 월 25 일 “아브라함 이야기(8) 두 부부의 웃음”(창 17:15-17; 18:10-15)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처럼 세상에서 유일하고 위대한 말은 없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발견과 경험이 없이 들으면 식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말씀(언약)하신 것을 다 지키고 이루시는 성품과 능력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75 세 때 부르심을 받을 때, 후손, 땅, 축복의 근원됨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9 세가 될 때까지(17:1)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후손으로서 이스마엘은 아니라 하시고, 땅의 소유는 아직 없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지는 아직 의아합니다.

누구나 이런 과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메시지를 들으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부정과 냉소가 담긴 불신의 웃음을 짓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을 그들도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 [1]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

17:15-17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을 믿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에 대한 애착 때문에 다른 상속자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18 절 참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세우려는 그의 계획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17 장에서 아브라함은 할례에 대한 말씀에는 순종했지만 18 장에서 천사들과 나눈 대화를 보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사라에게 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약속에 대하여 긍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8:10-12 절을 보면, 사라는 아들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아브라함을 질책하십니다. 13-14 절, ‘어찌하여 사라는 웃으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미래 출산에 관해 말을 못해준 것입니다.

그 때, 사라는 ‘저는 안 웃었습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속으로 웃은 것을 들키자 두려워서 나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웃었다.’ 이것은 사라를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그녀의 속까지도 보시며, 아들에 대한 기쁜 약속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려는 의도의 말씀입니다.

### [2] 사라의 심정

사라의 처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6 장에서 집에서 쫓겨난 하갈이 광야 샘에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 용기를 얻어 다시 여종의 자리로 돌아온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때 사라는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거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하찮은 여종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자유롭고, 용기를 내어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집안의 독자(상속자)로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를 불안하게 했을 것입니다. 혹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하갈의 위상이 높아지고 자신은 뒷방 신세가 될 모습을 상상했을 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계획으로 빚어진 것이니 얼마나 후회하며 자책 했겠습니까? 그런데, 별안간 자기가 90 세나 되어 아들을 낳을 거라고 들으니, 실소가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아브라함의 웃음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부정과 냉소적 측면에서 같습니다.

사라의 웃음에는 지난 십 수년간 겪은 하갈에 대한 영적 열등감, 무출산에 대한 실패감, 남편이 먼저 죽으면 닥칠 위상의 격하에 대한 두려움, 이스마엘에게 흠뻑 빠진 남편에 대한 한탄, 애처로운 자기 인생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감이 녹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신의 실소의 배경 속에 있는 내면의 골들을 살피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아들을 낳게 하셔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그녀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까요? 자신의 속을 살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라의 심정을 볼 때 우리의 삶의 색깔과 모양은 다르지만, 이러한 인생의 골들을 누구나 품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 만났다고 기뻐할 때, 난 왜 못 만나지? 그리고 점점 불안해지는 삶, 직장 문제, 자녀문제, 미래 대책 등, 자책하며 위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듯, 우리에게도 아들을 주신 주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탈출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사라에게 주시는 아들은 육신의 아들입니다. 반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지할 때 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로 사라가 겪었을 내면의 고충을 말씀해 봅시다. 그런 가운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사라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라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묵상하고 정리해 보세요.